

신춘문에 당선작

동화 당선소감

“세상에 따뜻한 국밥 같은 글 쓸 것”



장미연

- ▲1973년 강진 출생
- ▲광주대 문예창작과 졸업
- ▲강진에서 논술지도

저녁을 준비하다 당선 통보를 받았다. 느닷없이 심장 속에 철딱서니 없는 아기도 깨비 몇 놈들이 들어와 축구를 했다. 그 바람에 갑자기 목소리가 엄청 커졌다. 스토리범으로 ‘말쭙함법과 호랑이’를 보고 있던 깊은하늘, 미르바다, 맑음이 놀라서 쳐다봤다. 아이들! 쪽쪽 빨아주고 싶었다. 이번 작품 모델이 되어준 두 아들과 내 꿈에 고슴도치 믿음을 준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다.

들뜬 채 이틀을 보내고 나니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떡하지?’
당선만 되면 했든 막상 되고 나니 막막했다. 문득 내 이름 뜻을 떠올렸다. 그대로 풀면 ‘배우는 아름다운 연꽃’이다. 지금껏 난 진심으로 배우는 사람이었던가? 적잖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가족들에게 짜증이나 냈다. 이제부터라도 이롭고 존중 받고 살아야겠다. 40대엔 마당 넓은 주말 지어 국밥 퍼주는 아줌마가 되겠다 한 당당한 꿈도 다시 꾸어주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제자에게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라고 격려해주신 배봉기 선생님, 이은봉 선생님, 김해복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기만 장차했던 제 20대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던 고(故) 조태일 선생님 너무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딸의 꿈을 의심치 않고 믿어주었던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하늘만큼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부족한 글 예쁘게 봐주시는 심사위원 이상권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따뜻한 국밥 같은 글로 베풀며 살아가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동화 심사평

“시적인 리듬, 깊이있는 문장 으뜸”

먼저 전체 응모작품에 대한 평부터 시작하겠다. 안타깝게도 동화라는 장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글이 너무 많았다. 동화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는 게 아니다. 소설하고 똑같은 서사문학이다. 주위에 아름다운 이야기 거리가 있다고 치자. 그걸 그대로 쓰면 그건 동화가 아니라 예시에 가깝다.
동화가 되려면 작가가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을 다시 짜고, 이야기를 이리저리 비틀어내고, 적절한 등장배우들을 등장시키고, 곳곳에 복선을 배치해서 작가만의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음에는 이렇게 문학이라는 옷을 입은 동화를 많이 만나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작가가 무대장치도 훌륭하게 만들어놓았고 등장인물까지도 잘 설정을 하였지만 어렵게도 이야기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특히 주인공이 미래사회의 특권층인 코쿤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오미르바다 입양보내기’는 새 동생이 생겼을 때 생기는 가족 내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다. 소재는 평이하지만 시적인 리듬과 깊이 있는 문장이 단연 돋보였다. 여러 가지 복선을 깔면서 이야기를 꾸러가는 솜씨도 안정감이 있어, 이 작품을 결정하였다. 당선을 축하하고, 너무 좁게 동화라는 틀을 한정 짓지 말고, 그 어떤 장르의 문학보다 넓게 세상을 보면서 글을 쓰기를 바란다.



이상권

- ▲함평 출생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1990년 5월문학상 등단 ▲동화와 청소년소설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황금박쥐 형제의 모험’ ‘애벌레가 에베레를 먹어요’ ‘아파트 꽃밭’ ‘성인식’ 등

시

귀화(歸化), 혹은 흑두루미의 귀환(歸還)

정영희

아무르 강 소인이 찍힌 항공우편이 도착했다
우표 네 귀마다 고드름이 박혀있는 흑갈색 편지에는
온난화 현상도 이곳에선 세계대백과사전에서나 읽어보는 호사라며
한낮에도 발가락을 날개 안쪽 깊이 파묻고 지낸다는 이야기였다

순천만에서 담근 농계 장을 벌들 땀에 치즈대신
발라먹고 끼니를 때우다는 이야기며
새끼들로 인한 궁기窮氣때문에 늦은 저녁까지 시베리아 벌판에서
발품을 팔고 돌아온다는 행간에는 한숨이 진하게 배어났다

철새라고 부르는 비아냥 때문에 눈자의 진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대목에서는 먹빛 하늘을 갈기처럼 찢고 싶었다
허기로 눈발에 시리도록 발자국을 남기는 일이 이젠 지쳐
순천만의 텃새로 귀화를 결심하고 있다는 추신에 이르러서는
철 이론 폭설이 자작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갯가 짙푸른 눈알이 봉분처럼 튀어나온 이유를 알겠다
망동어는 왜가리 공습을 기어코 막았다며 전망대까지 벌써 올라와 있었고
철계들은 뽕 구멍 속에 흑두루미의 식량을 비축하느라
열 발톱이 문드러질 정도였다

흑두루미의 귀환 아닌 귀화를 위해 탄란한 움직임이라도 예비해야 한다며
풍속을 온몸으로 가늠하고 있는 갈매의 심지도 깊었다
너울은 먼 바다에서 싱싱한 먹잇감을 메리고 오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그재그로 물길을 오르내렸다

냉기가 옷깃을 쓸며가자 사람들이 탐조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깃털 스킨가드들이 구름을 밀어 올리자
쿠르르, 쿠르르, 카아오, 카아오
회색 부리들 비틀며 북쪽 하늘에 까만 점들이 펼쳐져갔다
이백 스물여덟마리 대가족의 귀환 아닌, 귀화였다

그림 = 강남구

- ▲조선대 미대 졸업 ▲동경국제서형문화 트리엔날레, ‘아 대한민국전’, 국제고교미술제 등 단체전에 참가.
- 19차례 개인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시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시 당선소감

“아궁이에 지핀 온기 나누고 싶어”



정영희

- ▲1957년 순천 출생, 필명 정도전
- ▲광주교육대, 한국교원대 대학원
- ▲여천초교 교장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날, 서걱거리는 갈대밭에 앉아 철새들의 비밀을 문구멍으로 엿따한다.
첫눈을 기다리며, 철새들의 몸짓이 함박 눈이라면 갈대들도 일어나 바람의 숨결에 맞춰 함박눈을 불러 모으겠다. 그러면 철새들은 구름의 모서리를 찢으며 목장밭에 내려앉아 추위를 쫓아대거나 덧난 생채기를 감불로 덮어줄 게야. 냉기일지라도 달무리처럼 힘겨 돌려 뒤돌아 외뿔까지 데워놓는다면 울 속속은 봄물처럼 흘러가겠다. 그러니까 어디 있던 친구야, 바쁘지만 하지 말고 순천만에 가보게나. 함박눈이 불꽃처럼 흩날리는 날에는.
설렘이 녹아 흐르는 첫눈 같은 시를 써야겠다. 밤새 뒤적거려다 날을 꼬박 새더라도 고비 사막에 첫눈만 내린다면 온 누리가 환하게 따뜻해지는 그런 시 말이다.
생의 존중과 함께 깔끔하게 걷어내는, 그 먼 폭설이 서너 달 쌓여 무등(無等)에 내가 고립되어도 좋으리. 그래도 좋게 있다면 철새들의 간식거리나 골목길 연탄재로나 서있고 싶는데, 얼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지 두

고 불일이다.
참, 또 한 번의 비상을 위해 발가락을 깊이 쥐는 흑두루미의 마법을 터득해야 하리.
아궁이에 지핀 온기를 두 심사위원님들과 함께 나눠가져야겠다.
기회를 놓친 분들께도 위로의 함박눈 한 잔 건네고 싶다. 가족, 교직원, 친구, 화요회원들에게 감사의 산보일배를 올린다.

시 심사평

“철학적인 시세계 한쪽의 그림 같아”

예시를 거쳐 올라온 시를 읽었다. 문단에서 시 분야가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출품작의 수에 비해 시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실험정신이 살아 있는 시도, 삶을 치열하게 노래한 시도 드물었다. 이슈가 될 만한 시의 흐름도 눈에 띄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시의 완성도도 낮았다. 세상을 들었다 놓을 절창을 만나고 싶은 기대를 안타깝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정도전의 ‘귀화(歸化), 혹은 흑두루미의 귀환(歸還)’과 권시은의 ‘프리다 칼로가 익어가는 팔월’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도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권시은의 작

품들이 완성도는 더 높았으나, 정도전의 시가 보여준 세계를 바라보는 깊이와 ‘철 이론 폭설이 자작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다’와 같은 수일한 이미지에 표를 던졌다. 정도전의 시는 다소 설명적 이어서, 행간에 이미지의 증폭이 없어 시의 맛이 반감되고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었음을 밝힌다.
위의 두 명의 시 외에 선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에는,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황재운의 ‘운주사’와 치밀한 묘사가 돋보인 천선필의 ‘자화상’이 있었다.
당선자도 낙선자도 모두 분기하여 우리 문학사를 빛낼 시인이 되길 바란다.

곽재구



- 광주 출생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사평역에서’가 당선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고 신동엽 창작기금과 동서문학상 등을 수상 ▲시집 ‘사평역에서’ ‘전장포 아리랑’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동화집 ‘아기 참새 씨꾸’ 등

함민복



- ▲충북 증원군 출생 ▲서울에진 문예창작과 졸업 ▲1988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제6회 윤동주문학대상 수상 ▲시집 ‘자본주의의 약속’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말랑말랑한 힘’ 등을 썼고, 시에세이 ‘절하고 싶다’ 등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에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용량(가정용)용량	설치시 청구요금	월 전기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내내
안정하십니까 태양광발전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할 아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

소자본 음식배달 사업자 모집

하루 50그릇 배달시 월 약 400만원 예상수익 대박사업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새롭고 신선한 먹거리...

배달품목
소갈비해장국 | 뼈다귀해장국 | 소머리곰탕 | 우거지해장국
황태해장국 | 육개장 | 갈비탕
감자탕류 : 소갈비감자탕 | 뼈다귀감자탕 | 생오리감자탕

매뉴 취급점 모집
식당 | 분식점 | 배달전문점 | 아식집 | 사우나 | 골프장 등
저희 메뉴가 필요한 업소에서 전화주시면 샘플을 맛보시고
필요한 수량만 주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쁜아집 배달사업의 장점

- 첫째: 조리시설 등의 필요없음, 가정집이나 사무실, 점포등 약간의 빈공간이면 가능
- 둘째: 주방장 전혀 필요없음, 맛이 아주 기막히게 좋고 반찬까지 본사에서 납품
- 셋째: 본사에서 원재료로 배송, 대우기만 하면 끝, 누구나 할 수 있음
- 넷째: 투잡도 가능, 중화요리, 치킨, 피자, 아식집등 배달업종도 전화 한대 더 놓으면 끝
- 다섯째: 냉동 식품이 아닌 레토르트 완전살균 제품이라 음식이 완벽하게 위생적이고 실은 보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이런 맛 처음이야~” 이쁜아집 때문에 장안이 시골 벽적합니다.

이쁜아집 체인사업본부 (대) 062-265-8900
본부장 직통 010-9885-2025